



해외수산정보

박형구/수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일본정부 중국과 8월 수역교섭회의 시작

일본정부는 8월중순에 중국과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에 따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교섭을 북경에서 개시할 방침이다. 일·중 양국은 이미 새어업협정에 관해서 교섭을 시작했지만 침각열도 영유권 문제가 얽혀 수역획정 교섭은 유보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1. 수역교섭과 하나로 되고 있는 신 어업협정의 년내 체결을 목표로 한다. 2. 침각열도의 귀속문제는 논의외로 한다 등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시킬 생각이지만 침각열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중국이 반발 일·중간 새로운 현안사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일·중 양국정부는 4.9일 동경에서 실무그룹에 의한 첫 어업교섭을 개시 어업관리권과 위법조업 문제 등에 관해서 협의했다. 그러나 어업을 둘러싼 경제획정 교섭에 대해서는 중국에 의한 지하 핵실험 문제 등으로 일·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상태에 놓여 협의를 유보했다. 현재 외교루트를 통해서 8월 중순에 북경에서 심의관급 교섭을 하도록 중국측에 타진하여 중국측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이다.

일본정부는 총어획량규제 도입 등 어업문제의 년내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측은 오히려 「수역획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추측하고 있다. 중국측은 침각열

도 주변의 지하광물자원 등을 염두에 두고 대륙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일본정부는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침각열도의 귀속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측이 요구하는 수역획정교섭도 시작하는게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침각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측은 '78년 당시 등소평 부수상이 「일시 유보하면 다음 세대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고, 또 錢其枕 중국 부수상겸 외상도 3월 일·중 외상회담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 외무성 대변인이 금년 2월에 「침각열도는 중국영토이고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화되어 교섭의 난항도 예상하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총회 개막

국제포경위원회의 제 48차 년차총회가 6월 24일 영국의 에버던에서 시작되었다.

가맹국 40개국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반포경국은 남빙양과 북서태평양에서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鯨類

조사와 노르웨이르의 자국근해에서의 상업적포경에 강력한 비판을 가해왔고 금번총회에서도 포경활동 중지를 위한 반포경국가가 여러 결의를 채택하는 등으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은 「경류 조사는 IWC가 인정하고 있는 가맹국의 권리다」라고 반론을 준비하고 있고, 「연안 소형 포경업자 구제를 목적으로 연간 50두의 잠정포경량 설정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르웨이와 카프리카 여러나라의 지원을 얻어 대처한다」는 반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94년 총회에서 결정된 남빙양을 고래 금지구역으로 한다는 Sanctuary(성역)의 개선과 상업포경 재개의 전제가 되는 고래 자원관리를 위한 개정 관리제도(RMS)의 신속한 완성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노력은 「반포경의 국제조류」앞에서는 열세를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반포경국이지만 시애틀 근방에 사는 원주민인 마카족이 포경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 상업포경의 일시정지(모라토리움)후에도 IWC가 인정하고 있는 「원주민의 생존에 필요한 포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번 총회에서 5두의 고래를 연간포획량으로 요구하고 있다.

틴 200해리 해역에서 好漁가 나타나고 있지만 6월 14일부터 시작된 페루 200해리 수역에서 조업은 거의 어획이 없다고 일본의 오징어 어업협회가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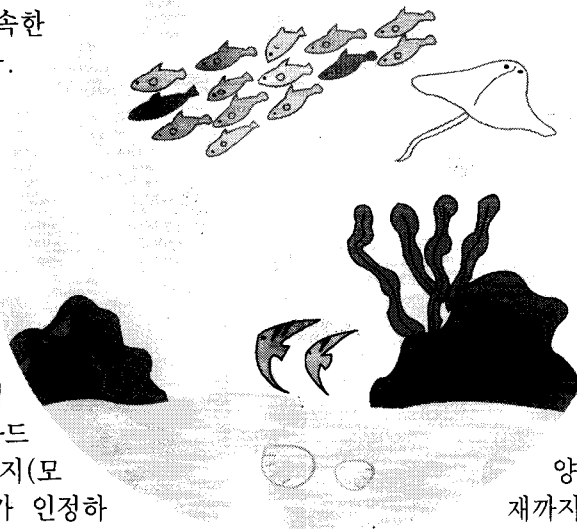
페루의 수산부 장관이 바뀌는 등의 영향으로 입찰이 5월 31일로 늦어졌던 동해역 200해 이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은 '95년 5월보다 약 1개월 늦어졌지만 현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수산청에 의하면 6월말 현재 조업허가선 32척중 12척이 수산청에 신청을 끝냈지만 「거의 어획이 없어 몇척이 조업하고 있는가는 불명확하다」고 말하며 「특히 이미 북태평양의 빨간오징어 조업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을 가진 어선도 상당수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금년 동 수역에서 오징어 채낚기의 일본선 할당은 조업허가선이 '95년도 26척에서 32척, 낙찰량은 42,132톤으로 '95년보다 8,000톤 가량 감소하였다.

반면 알제틴 수역은 계속적인 호어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어획량은 61,660톤으로 '95년도 동기에 비해 1% 정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알제틴, 뉴질랜드, 포클랜드 3해역의 어획량은 78,741톤으로 전년도보다 2%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해외 오징어 어선 어획 현황

일본어선에 의한 해외 오징어 조업은 알젠